

華僑/(下) 그들은 이방인인가 (조선일보 2003.02.07)

[마이너리티 리포트] 華僑/(下)

그들은 이방인인가

"외국인이라고 카드·휴대폰 안내줘요"

許仁貞기자 njung@chosun.com

崔炯碩기자 cogito@chosun.com

입력 : 2003.02.07 19:52 46'

올해 서울에 있는 K 대에 입학한 화교 3 세 임성민(19·가명)군은 부모가 임군의 대학입학을 위해 4 년 전 위장 이혼을 했다. 화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한국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엉뚱하게 화교 사회에 불뚱이 튼 것이다. 임군은 “화교 학교는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처럼 대학 시험을 보려면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치러야만 했다”며 “고등학교 진학 때 고민하는 나를 보고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했다”고 서글퍼했다.

한성화교학교 담도경(譚道經) 주임교사는 “교육부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한국인 교사가 한국 교과서를 가르쳐야만 학력 인정을 해주고 있다”며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 땅을 떠나려는 화교 가정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화교 학교를 나온 후 대만으로 진학한 화교 학생 수는 1 만 7000 여명에 달한다. 반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화교 학생

수는 200 여명에 불과하다.

대만대표부 관리는 “각국이 서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한국어와 중국어 양쪽에 능숙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외국인 학교법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화교 가정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

왕위림(17·가명)양은 “화교 장애인 학교가 없어 한국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 시설에 들어가려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됐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조그만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왕양의 아버지는 “딸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수첩’을 받지 못해 보험혜택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화교들은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한영외고 중국어 교사인 왕국량(汪國梁)씨는 “한국에서 15년간 교편을 잡고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나는 신용카드도 없고 백화점 회원도 안 되며 휴대전화도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외국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외국인 등록증과 번호를 교부했지만 여전히 전산망에 이들의 신상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SK 텔레콤 썩준(邢俊) 과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

신상정보를 팩스로 보내고 며칠 걸려 확인 받는 데도 지쳤다”고 했다.

대만대표부 관리는 “담당부처인 법무부와 정통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고대 중문과를 휴학 중인 화교 3세 송동분씨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운아이즈의 노래 ‘점점’을 좋아하고

영화배우 정우성에 열광하지요. 월드컵 때도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5년마다 체류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휴대폰과 신용카드도

가질 수 없는 한국사회의 ‘이방인’입니다”라고 말했다.